

# 開化期 討論體小說 研究

金 重 河\*

## I. 序 言

開化期 文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짐에 따라 불분명했던 韓國文學傳統의 接脈相과 西歐文學의 移入過程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整理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韓國 新文學의 전통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은 물론, 거슬러 前代文學의 새로운 정리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筆者는 開化期 文學中 小說에 관심을 가지고 몇 편의 작품에 대한 개별적 연구를 해 온 바가 있다.” 本稿는 이의 연장에 해당되는 것이다.

開化期 新聞小說 또는 開化期 小說의 樣式을 筆者는 三大別하여, 傳的인 것, 討論體, 回章體 또는 公案體로 나눈 바가 있는데,“ 本稿는 이 중 討論體小說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 釜山大教授(國文學專攻)

- 1) 지금까지 新文學은 西歐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것처럼 생각되어지다가 傳統과의 接脈을 새삼 강조할 수 있게된 것은 開化期 文學研究의 가장 큰 성과다. 또 막연하게 西歐文學의 충격이라고만 해 오던 것이 그 移入經路가 차츰 밝혀진 것도 좋은 성과다. 이러한 연구는 李在鎭, 金秉喆, 金澤東, 金容履, 宋敏鎭, 趙東一 등 諸教授에 의해 진행된 바 크다.
- 2) 古代와 近代 등으로 文學史를 分離시켜 온 것은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겠는데 그 가능성을 여기서부터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3) 拙稿: '開化期 新聞小說「車夫誤解」小考' 睡蓮語文論集 第3輯, 釜山女子大學 1975.  
'開化期小說「一捻紅」研究' 釜山大學校 文理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14輯, 1975.  
'開化期 新聞小說「의티리국 아마치전」研究' 韓國文學論叢 第1輯, 釜山, 1978.
- 4) 拙稿: '開化期小說「一捻紅」研究' 開化期 新聞小說「의티리국 아마치전」研究 등 참조.

우선 討論體小說이 小說의 한 樣式으로서 成立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先決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開化期 小說 研究는 이 문제에 대해 등한했다.<sup>5)</sup> 일단 小說樣式으로 긍정하고 받아 들이는 형편이긴 하지만 이의 確實한 근거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둘째로, 이러한 樣式은 어디서 어떻게 發生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하나의 文學 樣式은 갑자기 나타나지는 것이 아니며 이유없이 쉽게 소멸해 버리지도 않는다. 討論體小說은 어째서 開化期에 잠깐 나타났다가 傳承되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도 아울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本稿에서 관심하고자 하는 것들이다.

## II. 討論體小說의 樣式的 特徵

近代小說이 갖는 形式的 整濟性에서 본다면 前代小說이나 新小說은 形式的으로 형성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小說의 前身의 形式이라 볼 수 있는 說話는 더욱 심할 것이다. 그러나 敘事文學이라는 폭넓은 觀點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갖는 共通性이 있을 것이고, 때문에 하나의 樣式으로 對接받을 수 있다.

敘事文學의 成立要件은 여러 가지로 理論이 分分하겠지만 일단 說話者, 聽者, 敘事內容 등의 三要素가 그 本本이 된다고 본다면 說話에서부터 近代小說은 하나의 樣式으로 묶어 생각한다는 것에 大過 없을 것이다.<sup>6)</sup> 물론 近代小說로 발전된 樣式에 이 三要素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가보다는 說話者가 숨겨져 있거나 聽者의 存在는 흔적만 남기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또 敘事內容 自體에도 變化가 있어, 分명한 事件의 展開가 없어지고 人物의 內面

5) 李在統:「韓國開化期小說研究」一潮閣, 1972.

宋敏鎭:「韓國開化期小說의 史的 研究」一志社, 1975.

등에서도 對話體로 되어 있음을 지적했을 뿐, 詳論하지 않고 있으며 대체로 既定事實化하고 있는 듯하다.

6) 額字小說의 成立을 위해 Wolfgang Uayser가 제시한 敘事의 本本, 原初의 形式은 敘述者, 敘述內容, 淸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李在統:「韓國短篇小說 研究」一潮閣, 1975 참조.

세계에 대한 分析으로 대치되거나 事件이 變化에 依存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가장 原初의 敘事文學에서 발전적 樣式으로 移行되면서 생겨난 變貌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사실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討論體小說의 樣式은 어떠한가?

이 문제 해결에 앞서 이 樣式에 속하는 作品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부터 밝혀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究研家들이 言及해 온 것은 「항로방문의성이라」 「쇼경과 안증방이 문답」 「車夫誤解」 등 세 편에 불과하다.<sup>7)</sup>

그러나 筆者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上記作品 이외에도 「항객담화」 「시사문답」 두 편이 더 있다.<sup>8)</sup> 결국 이들을 합해 보았댜자 5편이라는 量的으로 적으나 적다는 데 樣式으로 成立되기 어려운 바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은 다음 項으로 넘기고, 일단은 이들 작품만으로 樣式的 特徵을 抽出하기로 한다.

討論體小說은 一見 小說이라 할 만한 구체적 발전적 사건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特徵이다.

時事問題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여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開陣해 나가거나, 묻고 답을 하지 않으면 당시대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비꼬아 諷刺하는 對話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 갈등에 의한 사건이란 일어나는 법이 없다.

때문에 討論體小說의 人物設定은 對立的關係에 놓이는 두 인물의 등장은 없다는 것이 다음 특징이 된다.

비록 討論者로서의 두 인물 또는 여럿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은 한 방향으로 固定되어 있어 반대자가 없다. 갈등의 요인을 가진 對立者로서의 인물설정이 아니라 話題를 끌어내거나 변화를 위한 配置에 불과하다.

7) 李在詵, 宋敏鎰 두 研究家들은 이 3편만 언급하고 있으며, 따로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질이 없다.

8) 「항객담화」: 大韓每日申報, 1905. 10. 29~1905. 11. 7

「시사문답」: 大韓每日申報, 1906. 3. 8~1906. 4. 12.

이 2편이 빠지게 된 것은 標題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담화·문답이 소설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일 것일게다.

人物의 이러한 특징은 行爲의 無意味性을 낳는다.

인물은 生動하는 小說內的 存在가 아니라 作者의 편의에 의해 등장하는 無性格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行動은 時間的 경과나 空間的 背景의 이동을 보일 뿐이며 背景이 기능적 작용을 포기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하면 時間과 空間이 小說 속의 사건이나 인물을 支配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背景은 虛構의 人物의 등장을 잠깐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나면 그 사명을 다한 것이 된다.

때로는 背景의 變化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行動의 無意味性과 함께 기능적 작용이 되지 못하고 話題의 探索이나 변화를 위한 작은 考察에 지나지 않는다.<sup>9)</sup>

討論體小說의 이러한 특징들은 小說樣式으로서의 결정적 흠이 되어서 討論體小說의 否定的 要素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관찰해 보면 이러한 否定的 要素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肯定的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討論體小說이 小說樣式이기 위한 構成의 三大要素로서의 人物, 事件, 背景이 다 否定的이긴 하지만, 全體 한 편의 小說이 갖는 시작과 중간, 끝이라는 進行에 대한 구성 의식은 분명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sup>10)</sup>

두 등장인물의 만남과 討論過程, 다음은 인물들의 헤어짐이란 진행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 이것은 인물들의 갈등에 의한 小說內的 사건은 비록 없다고 해도 전체 구조가 갖는 敘事性은 配慮되어 있음을 뜻한다.

[가-1] 또 처된지 나다가 슈습향락이 모히담화하는 말들들은 착한사람이 가로되지금세계는 참취황찬란호세계라……

[가-2] ……그리되면그사람들은장성불스려게츨미막히그동곡호일이로다허며일강담화가도다시극이잔뜻뵈여가물한탄히는말이더라. <향락담화><sup>11)</sup>

9) 「향료방문의성이라」에서 노인이 자신의 과거, 집안이 망하기까지를 얘기하는 대목은 시골이 背景이 되어 있고, 醫生을 방문하여 토론하는 것은 서울에서다. 이런 배경의 이동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이것조차 대화 속에서 진술되어 있다. 만일 이의 獨立性을 인정한다면 額者가 성립될 가능성이 생긴다.

10) 敘事構造의 進行을 시작(처음)·중간·끝으로 나누어 생각한 사람은 Aristoteles다.

11) 이 인용에 사용된 大韓每日申報는 景仁文化社에서 1976년에 낸 影印本이다.

- [나-1] 일견에엇더호소경한아이막덜뽀뽀거리고모쳐망전가가압호로지나가는디그곳  
에서망전일호는안증방이가그소경을볼러갈오티여보게그동안엇지혀오리엇나  
지못허엿나……
- [나-2] ……참기막힌말일세하며허희장탄에노리일곡부르면서막덜뽀뽀거더라. 그  
노리에호엿스되…… 〈쇼경과안증방이문답〉<sup>12)</sup>
- [다-1] 시골스노로인한아이시국이소요호을듯고관광츠로죽장마해에도보로상경하야자  
쳐로도라단니다가모쳐약국에드러간즉그약국주인의심이마져좌정호후무러갈오  
터……
- [다-2] ……취홍을불승하야단가일곡화답호니낙지기중이안인가그디는취하였고나는장  
츠갈터이니후일을다시그약노라 〈향로방문의심이라〉<sup>13)</sup>
- [라-1] 모쳐병문에서여러스람드리모야안져각기소경스로보고들은말을서로논란허는디  
기중에인력거군호아이모로터……
- [라-2] ……일단병근이될듯호니도로허듯지아니호앗슬척만갓지못호도다호고인력거를  
들고가며즈탄가노리호니그노리에호앗스되산침첩슈중중이라. 〈車夫誤解〉<sup>14)</sup>
- [마-1] 근일촌귀화창호터엿던선비량인이손을글고늬흔곳에올나안져장안티도상왕리에  
는사람을지점호며고금치란의시비를평론호야시국의불평호을기탄호고……
- [마-2] ……인호야구양용의지은바석양지산에인영이산란호고금조는지산림지이부지인  
지낙의글귀를을푸며산에나려각기집으로도라가니라. 〈시사문답〉<sup>15)</sup>

※[-1]은 시작을 [-2]는 끝 부분을 나타낸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등장인물의 만남으로 시작하는 처음과 討論으로 충당  
된 중간, 토론이 끝난 뒤에 헤어짐으로 叙事構造를 마무리 짓는 끝이 분명  
히 드러나고, 話者(叙述者)의 存在는 끝부분에서, 청중의 存在 또한 끝부분  
에서 그 殘滓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作家意識은 결국 叙事構造에 대한 자각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虛構性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虛構性에 대한 인식이란 小說內的 事件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人物設  
定에 있어서의 것이며 그것은 說話가 갖는 人物設定과 같은 차원에 놓여 있

이하 申報로 略稱한다.

- |                            |                        |
|----------------------------|------------------------|
| [가-1] 申報 1905. 10. 29.     | [가-2] 申報 1905. 11. 7   |
| 12) [나-1] 申報 1905. 11. 17. | [나-2] 申報 1905. 12. 13. |
| 13) [다-1] 申報 1905. 12. 21. | [다-2] 申報 1906. 2. 2.   |
| 14) [라-1] 申報 1906. 2. 20.  | [라-2] 申報 1906. 3. 7.   |
| 15) [마-1] 申報 1906. 3. 8.   | [마-2] 申報 1906. 4. 12.  |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特定한 個性을 갖는 人物로서가 아니라 전개될 사건에 필요한, 꼭 알맞은 정도의 平面的 人物이 說話의 人物이듯이 討論體小說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다음에 전개될 討論에 가장 적당한 인물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討論體小說이, 人物에 依한 主題의 구체화에 이르는 근대소설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고, 主題를 감당할 人物을 後選하는, 즉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나 主題를 話題로 삼아 討論에 임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되어 被動的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로에 의해 人物設定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은 虛構的이라 하더라도 自意性보다 他意性—作者的 意圖에 따라 討論을 전개해 나가는 無性格의 特性을 가질 수 밖에 없이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無性格性은 근대소설 이론에서 인물만을 獨立시켜 생각했을 때만 그러한 것이지, 인물설정의 과정에 작용하는 作者的 意圖를 결합시켜 고려한다면 意圖의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虛構的 인물로서 小說內的 討論을 主宰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 낸 能動性을 가졌달 수도 있다.

결국 討論體小說의 인물은 說話의 敘事構造에 알맞은 정도의 虛構的 인물이라 할밖에 없겠지만, 虛構的 人物임에는 틀림없는 것이고, 또 作家가 敘事構造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否認할 수 없다.

다음은 討論의 진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討論의 진행은 論理的 전개가 되지 못하고 개별적인 몇 개의 事項이 순서 없이 다루어져 裝飾的 反復(Decorative Pattern)을 이루고 있다.<sup>16)</sup> 때문에 討論進行에 필연성이 없고 산만한 느낌을 주며 개별적 작품의 독립성은 인정할 수 있어도 여러작품 사이에 同一한 事項의 重復이 드러나기도 하고 극적 긴박감이나 탄력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항로방문의성이라」는 작품에서만은 類子小說로서의 가능성을 엿

16) Pattern은 C. Brooks·R. Penn Warren共著 Understanding Fiction에서 <플롯 속의 유발적 사건과 작은 사건들의 반복과 같은 意味있는 반복>이라 했다. 또 이를 나누어 장식적인 것(Decorative Pattern), 심리적인 것(Psychological Pattern), 논리적인 것(Logical Pattern)으로 3分하였다. 이를 小說 분석에 적용 시도한 拙稿「Pattern分析에 依한 韓國小說의 研究」, 釜山大學校 文理大 論文集 第15輯, 1976年을 참고할 것.

보이기도 하여 작품의 구성에 약간의 탄력성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역시 裝飾的 反復 手법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

대체로 이러한 평면적 진행에 변화를 주기 위한 考案으로 사용되는 것이 단가 또는 장탄가류의 삽입이다.<sup>17)</sup> 이것은 作者의 의식적 考案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체 敘事構造에 다양성과 탄력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해 줄 수 있겠다.

이상 언급한 바를 요약하면, 討論體小說이 비록 事件의 展開도 없이 對話 또는 對談, 問答을 주로 하는 특징 때문에 小說樣式으로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하더라도 敘事構造를 가졌으며, 人物設定이 虛構性에 바탕하고 있어 일단은 小說樣式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과 裝飾的 反復 手법에 탄력과 다양성을 주기 위해 단가 또는 장탄가류가 삽입되어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겠다.

### III. 討論體小說의 發生學的 淵源

討論體小說의 기본 구조가 虛構의 人物의 設定을 위한 시작과 討論을 진행시키는 중간, 人物의 물러남이 끝으로 짜여져 있음은 前項에서 이미 밝혔다. 또 이러한 구조는 발전된 근대소설인 구조라기보다는 說話에 가까운 것이란 점도 인물 설정의 단계에서 이미 밝혀진 셈이다.

說話의 구조를 가졌으며 중간부분만 특이한 討論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討論體小說의 구조적 특징이겠는데, 그러면 이러한 小說樣式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本項에서 考究하고자 한다.

#### (1) 說話에서의 傳承

하나의 새로운 문학 양식은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없는 것이라면 討論體小說 양식도 이에 앞선 유사한 양식이 있어 이의 變形・發展의 단계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이의 발생을 자극하였을 어떤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7) 특히 「소경과 안증방이문답」 「향로방문의성이라」 「車夫誤解」에 장탄가의 삽입이 많다.

筆者は 討論體小説의 발생이 우선 형식적 유사성에서 說話 양식의 영향을 받은 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說話는 대체로 하나의 話素(motif)에 의해 이루어지는 간단한 사건의 推移를 보여 주거나, 顛末을 밝히는 것이긴 하지만 드물게는 才談 또는 對話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다음은 孫晉泰氏의 韓國民族說話研究에 실린 「山之高高撐石故」라는 故事인데, 이는 對話形式을 빈 對句를 중심한 것으로 이를 간추려 보인 것이다.

丈人：山은 어찌 저렇게 높으나? 次婦：山之高高撐石故  
 長婦：天之高高撐石故?  
 丈人：솔은 어찌 저렇게 푸르냐? 次婦：松之青青實中故  
 長婦：竹之青青實中故?  
 丈人：路柳는 왜 크지 않느냐? 次婦：路柳不長閑人故  
 長婦：丈母不長閑人故?<sup>18)</sup>

이 說話는 영리한 둘째 사위만을 偏愛하는 丈人と 거기에 편승하려 드는 알량한 同婦를 비교아 주기 위한 첫째 사위의 재치와 해학을 담은 것이다.

이러한 說話의 中心은 등장인물의 對比보다는 才談에 있고, 그것은 問答의 형식을 빌거나 대화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開化期에까지도 더러 전해져 왔던 듯하다.

1898년 1월 15일 독립신문에 실린 어느 학도의 글 가운데 「속담」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실려 있다.

돌서 하나에 명산 대전에 두루 다니다가 혼 집에 들어가 키고리를 보고 흥는 말이 기뻐가 적막한 우물 밋히 잇서 세상이 잇더 흥을 아지 못하니, 실노 혼심하고 민망하도다. 네 나를 좃차 우물 밋외 나오면 텃디의 광활함과 일월의 명랑함과 산천의 슈려함과 화초의 번성흥을 력력히 구경할 것이오……키고리 덕답하되 그더 말슴이 허황하고 오황하도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여러 세대를 이 곳에서 살아……그더 말을 드를 리도 업고 밋을 것도 업노라 물서가 키고리의 고집흥을 보고……<sup>19)</sup>

18) 孫晉泰：「韓國民族說話研究」乙酉文化社，1954，再版，pp. 80~82.

이 책에서는 對話로 풀이된 것을 인용의 편의상 줄여 中心 漢文句만 적었다. 인용부분 다음에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벗겨졌느냐?」 질문이 더 있다. 이와 유사한 戲詩와 부분적으로 다른 說話에 대한 언급도 있다.

19) 독립신문 1898. 1. 15. 中央文化出版社에서 1969年 影印한 것을 이용했다. 이 하 인용은 같은 책.



비록 의인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식은 對話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山之高高擲石故」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이외에도 이런 類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說話, 또는 조금 變型된 것으로 예를 찾는다면 간간이 발견되어진다.

더 나아가 孫晉泰氏의 解說처럼, 어린이들의 재치를 다루어 보기 위한 수 수계끼에 가까운 것으로, 예를 들면, 큰 빈 독 속에 공이 빠졌는데 독을 깨지 않고 전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식의 것도 才談式의 說話의 不完全한 형식 또는 變型으로 본다면<sup>20)</sup> 이런 對話, 問答 형식의 說話는 상당히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셈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說話의 양식은 討論體小說의 그것과 많이 닮은 점이 있다. 처음부는 人物設定을 위해 간략히 줄여지고 對話가 중간부를 차지하여 中心을 이루며, 끝은 처음부에서 보인 인물들의 관계에 변화가 오거나 그냥 밋밋하게 별다른 설명없이 닫힌다. 이 類似點으로 보아 問答形式의 說話가 직접적으로 討論體小說로 變形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그 連脈은 있었다고 推定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討論體小說 發生을 도운 또는 자극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說話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 (2) 漢文小說 또는 前代敘事文學의 영향

說話와 함께 討論體小說 發生에 영향했을 것으로 前代의 敘事的 성격의 문학 또한 漢文小說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要路院夜話記에 보면 朴斗世가 京華巨族의 오만함과 알랑함을 비꼬고 무릎꿇게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事件의 展開에 의한 것이 아니고 對談을 통한 것이다.

我觀鄉之賭(내 석굴나기를 보니)  
 怪底形體條(형상가지기를 괴저히 하는도다)  
 不知諺文辛(언문 쓸 줄을 아지 못하니)  
 何怪眞嘗沼(어찌 진서 못함이 고이하리오)  
 인하여 날을 화(和)하라 시기거늘……  
 我觀京之表(내 서울 것을 보니)  
 果然舉動戎(과연 거동이 되도다)

20) 孫晉泰 : 같은 책 pp. 69~71. 에서 「兒智에 관한 說話」라 하여 수수계끼의 근원이 說話에 있다고 했다.

大抵人物貸(대저 인물을 꾸었으니)  
不遇衣冠夢(불과 옷과 관을 꾸밈도다)<sup>21)</sup>

空間的 배경은 要路院의 한 客舍로 고정되어 있으며 時間的 경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 속의 시간은 이야기 밖의 시간과 일치하고 있어서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要路院夜話記는 그러므로 敘事文學의 구조를 가졌으면서도 事件의 展開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對談을 통해 京華巨族의 오만불손함을 꺾고 諷刺하는 語弄에 主眼點이 있는 것이다.

이런 類의 敘事的 글은 그 例가 더러 보이며 또 漢文小說 중에서도 발견된다.

燕巖의 「虎叱」은 漢文小說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諷刺性을 높이 사고 있는 作品이다. 이 作品의 強點은 호랑이가 똥통에 빠진 北郭先生을 꾸짖는 대목에 있으며 또 北郭先生이 호랑이 앞에서 비굴해진 모습에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다 對話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등장인물의 행동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對話에 中心을 두고 있으며 직접적인 효과를 의식한 發言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對話를 中心한 다른 예로 靑丘野談 栖碧外史 海外蒐佚本에 실려 있는 「聽驟雨藥商得子」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藥肆라는 한정된 空間的 背景 속에서 藥僧가 20年 전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對話로 엮고 있다.<sup>22)</sup> 이것은 事件 進行이 對話 속에 內在하고 있어서 앞서 보인 「要路院夜話記」나 「虎叱」과 같다고는 할 수 없으나 對話를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음과 짜임새의 유사성, 즉 중간부가 對話로 어울려 있고, 거기에 中心이 놓여 있다는 점에 注意해 볼만 하다. 이것은 討論體小說이 중간부의 대화로 된 토론을 중점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닮은바가 있다.

21) 李秉岐選解: 「要路院夜話記」乙酉文化社, 1958年 三版, pp. 20~24.

인용의 편의상 다른 대화는 예고 풍월놀이 부분만 인용한 것이다.

22) 李佑成·林榮澤: 「李朝漢文短篇集」〈中〉, 一潮閣, 1978에서 「驟雨」라 표제한 것을 再引用하였다. 여기서 대화는 과거의 사건을 풀어 나가는 구실도 한다. 비를 피하고 있던 청년과 藥僧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면서 父子間임을 확인하게 된다.

「要路院夜話記」나 「虎叱」, 「聽驟雨藥商得子」가 討論體小說의 前身的 意味를 가졌달 수는 없겠지만, 앞서 든 說話들과 함께 討論體小說 양식의 발생에 영향하였을 것이라는 假定은 그 양식상의 類似性에서 肯定되어도 좋을 것이다.

### (3) 開化期 新聞 論說의 영향

開化期 新聞의 論說은 現代新聞의 그것과 기능은 같이한다고 하겠으나 그 양식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달 수 없다. 社是나 主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他新聞의 報道에 辯說을 섞기도 하고 條約이나 法令에 대한 해설을 붙이는가 하면 러시아 海軍의 軍단 규모를 소개하기도 하며 심지어 학술논문이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실고 있다.<sup>23)</sup> 이러한 다양한 내용보다 筆者의 관심을 끈 것은 論說의 硬直性을 피하여 問答形式을 취하는 경우다. 그 事例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런 양식은 討論體小說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그 영향 관계를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1] 일전에 었더흔 대한 신스 학나이 외국 정치가 학나를 못나 보고 방금 세계 사경과 동양 형편과 별노히 대한 일을 이악이 학논터 대한 사물이 주귀 나라 일노 리오 걱정 학거늘 그 외국 정치가가 말하되 내가 만일 대한 사물이 되었드면 다니며 나라 걱정을 덜하고 안쳐서 실상 근심 되는 일을 떠일 도리를 학겐노라 대한 사물 말이 무슨 도리가 잇나냐……

[가-2] ……이 이악이가 리오 재미 잇기에 귀직학니 우리 신문 보논이는 그 대한 사물의 처디를 당히서 었더케 작명 홀는지들 요람들 학여 보시오.<sup>24)</sup>

[가-1]은 論說의 서두요 [가-2]는 그 끝이다. 이 양식만으로 보면 討論體小說의 그것과 전연 같아 보이는데도 다만 머리에 <론설>이라 붙어 있어 소설이랄 수가 없는 것이다.

허구적 인물의 설정을 위한 처음부에서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토론의 중심 문제로 유도하고, 그 토론이 끝남과 함께 인물의 관계는 정리된다.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앞서 한 얘기를 객관화시켜 하나의 완결된 敘事構造를 갖게 만들고 있다. 이것은 비록 <론설>이라 이름 붙여 있긴 하지만

23) 皇城新聞에는 論說이라하여 '我韓疆城西北沿革攷'를 실고 있으며 大韓每日報에는 '발터학터'라 하여 러시아 海軍力을 소상히 보고해 주기도 한다.

24) 독립신문, 1898. 1. 8

양식상 討論體小說에 무척 닮았다.

다음은 皇城新聞에 실린 問答形式의 論說이다.

[나-1] 有一農家者流 | 過之而憂曰今茲次(?)歲에 兩旱이 兼至하니 大饑之患을 惡得免乎 리오 哀我齊民이 迨其相見于○壑이 無日也 로다 하야 著記者 | 日曷謂兩旱고 한터客 曰農家之諺에 有之하니 曰天旱曰地旱이 是也 라 하야 著記者曰可得聞乎 아 客曰...<sup>25)</sup>

[다-1] 或有問曰今閱貴報上所論滿洲問題一篇則抑揚反覆에 痛論日俄之情形하니 可謂 妙解於時局之事狀이 로되 但未知足下 | 何以知俄人之非眞個撤兵이며 日人之實無 意於開戰也 오 記者 | 曰.....<sup>26)</sup>

[나-1]은 三旱問答이라 題한 論說이고 [다-1]은 滿洲問題問答이란 標題가 붙어 있다. [다-1]은 비교적 解說的 性격을 띠고 있으며 時局의 문제에 데 한 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즉 論說의 정도를 밝고 있다. 그러나 [나-1]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批判的인 안목과 諷刺的 性격을 첨가하고 있다. 三旱은 自然的인 天旱과 地旱에 人旱을 더하고 있음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2] .....惟以侵漁浚剝에 營私肥己로 枷鎖溢狂하고 鞭笞盈庭하야 鵠形鬼面이 十顯八 九하며 厲戶部屋이 百存一二하야 盜賊이 恣橫하고 人烟이 冷寂이 면是난 所謂人旱也 라.....

人旱의 지경에 도달하게 되는 원인은 정치가 잘못 되어 있거나, 官人이 백성을 생각지 않고 私腹을 채우고 있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爲政者의 부패와 부조리를 매섭게 찌름은 論說 본래의 양식인 直叙의 방법이나 힘찬 논조로도 가능했을 것이며, 또 이러한 논설도 자주 실린 바 있었는데 새삼스레 또 問答形式으로 실는 까닭은 무엇일까?

論說이 갖는 硬直性을 피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나 토론을 통한 注入式 효과를 노려 이런 양식이 선택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양식이 논설의 直接性을 굴절시켜 소설양식에 더 가까와지도록 하였으며 다분히 虛構的 분위기를 조성시키게 만든 셈이다.

25) 皇城新聞 : 韓國文化開發社 影印本. 1974를 대본으로 하였음. 이하 같음. 1903. 6. 27.

26) 皇城新聞, 1903. 10. 16.

여하튼 이러한 問答形式 또는 討論體小說의 論說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음의 討論體小說 양식 發生에 連脉되어 있음은, 그 양식의 유사성과 意圖의 諷刺性, 解說的 역할 등으로 立證될 수 있다.

이상으로 筆者는 討論體小說 樣式 發生에 影響하였을 세 분야, 說話, 漢文小說 또는 前代의 叙事的文學, 開化期 新聞의 論說 등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이 중 어느 하나만이 절대적 影響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듯이 이 세 분야의 복합적 影響하에서 討論體小說 樣式이 發生했을 것이라는 가정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序頭의 虛構的 構造, 結尾의 단순성, 중간부의 문답 또는 토론 형식 등과 같은 樣式的 類似性과 人物의 虛構的 設定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 IV. 討論體小說의 發掘

討論體小說이 量的으로 적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널리 연구되어 온 「소경과 안증방이 문답」, 「향로방문의성이라」, 「車夫誤解」등 3편에 필자의 조사에 의한 「향각담화」, 「시사문답」까지를 합해도 5편에 불과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필자는 앞서 討論體小說의 淵源을 밝히는 자리에서 <론설> 몇몇의 구조적 양식이 소설에 가까움을 지적했지만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이러한 구조적 同一性에서 본다면 더 많이 討論體小說로 보아야 할 작품이 있으리라 생각하여 비록 소설이라 이름붙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소속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보았다.<sup>27)</sup>

지금까지 研究者들은 한글로 표기된 것만을 관심하였으나 이 경우 문자의 선택은 양식의 선택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開化期小說에 있어서 문자의 선택은 독자선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글쓴이의 意識目的에는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필자는 漢

27) 討論體小說 가운데 “소설”라 이름 붙여진 것은 「車夫誤解」 하나뿐인데 그것도 제 1회에만 <小說>이라 했다. 그러므로 소설이라 지목되고 아니고는 큰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구조의 양식 쪽에서 판정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主國從體의 글들도 양식의 同質性이 발견된다면 일단 관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본다.

### (1) 寄書中에서

寄書는 開化期 新聞에 실리는 讀者들이 投稿한 글이다. 때문에 署名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로 筆名을 사용하고 있어 本名을 알 수 없는 것이 많고 때로는 新聞社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있다. 寄書는 雜報欄에 실리는 것이 보통인데 가끔 一面 論說이 실릴 자리에 우대해 실리기도 하는 좀 특이한 성질의 것이다.

開化期에 新聞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대로 보아 상당히 앞선 생각을 가졌거나 民族意識에 투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投稿 내용도 現實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時事問題에 一家見을 갖고 있으며 先知者的 기질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 寄書 내용이 社是와 일치되고 다른 일반독자들에게도 읽힐 만한 가치가 인정될 때는 論說만큼의 대우를 받아 一面에 실릴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 영향력도 상당했던 듯하다.

이러한 寄書의 내용은 대부분 民族精神의 고취, 現實批判, 啓蒙의 時事解說 등이며 論說條 형식을 취하게 되지만, 가끔 論說 속에서도 問答形式이라는 變形이 있듯, 寄書中에도 問答·討論形式이 발견되고 그것은 討論體小說이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 있다.

엇던 유지각훈 친구가 이 글을 지어 신문사에 보내었기에 좌에 지귀하노라.

지나간 밤 몽중에 강산 구경 조와하는 엇던 친구를 만나 담화하되 강산 경기가 어더어디 볼 만하더냐 무른 즉 그 친구 대답하되 내가……<sup>28)</sup>

이렇게 시작하여 강산의 병풍을 이야기하고, 그 원인이 <스물목>이라는 독한 나무 때문임과 그것은 <철남성>이라는 풀의 비호를 받고 있어 쉽게 없앨 수 없기는 하나 힘을 다하여 없애겠다는 결의를 보여 준다. 이는 당시대의 부패된 爲政者와 그 주변 인물을 풍자하는 얘기다.

이 寄書는 <몽중 설화나마 그 뜻이 니상하기로 거저하나이다>로 끝을 맺는다. 물론 중간부는 대화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討論體小說 樣式과 일치되고 있으며, 독립신문이 한글만으로 표기

28) 독립신문, 1898. 3. 29.

되어 있으니 순 한글 표기임에도 틀림없다.

다음은 皇城新聞에 실린 崔永彪의 寄書로 「天下大勢問答」이라는 標題가 붙은 것이다.

或問近日日俄○仗之說果將如其言耶余答曰不然方今形勢不得不日先於俄……問明見其機何也曰英自戰杜之後……問東洋之勢既如此爲我韓計將用何術耶曰勸圖自守而已<sup>29)</sup>

漢文으로 표기되었다는 특징을 제외하더라도 人物設定의 첫머리가 줄어들어 있음과 끝부분의 단함이 없다는 것으로 變形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問答의 형식을 빌어 쓰고 있음과 現實的인 문제에 관심하고 있는 불확정한 두인물이 전개되고 있음은 討論體小說 양식의 中心에 닿아 있어 不完全한 討論體小說이라 할 만하다.

이에 비하면 가장 완벽한 양식을 갖춘 것으로는 大韓每日申報 一面 論說 자리에 실린 「時事問答」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앞서 筆者가 소개한 「시사문답」과는 다른 것이다.

〈日本留 夢遊生 記〉라 하여 筆者를 밝히고 있으나 本名은 알 수 없다.

余 頃夜夢中에 遇一山麓호시何許老人이 對坐相談호므로 傍聽之호엇스나似非個人所有故로 玆用 廣布호노니 請勸 精看了이다.

(甲) 我等은 임의 黃泉客이 되엇스나 아모것도 不能호나 其生存호 人物들은 至今에 무엇하는 지 畚畚호오

(乙) 여보 畚畚호말이야 測量호수잇소그러나 民智는 半開호모양임되다 國債報償에 爭先捐義호는거시

⋮

⋮

自評 其他 言辭가 多有 奇絶호고 或有 漏說이나 弟終乙之 結言을 像 권되右老人이 아마 鑛道 附近地에 在호든 墳墓로서 破逐호神魂인가호노라.<sup>30)</sup>

이것은 나무랄 데 없는 討論體小說이다.

國漢文 混用體라고해서 버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양의 討論體小說은 더욱 빈약해질 것이다.

필자는 앞서 든 세 작품도 폭넓은 討論體小說속에 포함시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29) 皇城新聞, 1903. 9. 22.

30) 大韓每日申報, 1907. 4. 24.

## (2) 標題 붙은 雜報中에서

雜報에 실리는 記事는 開化期의 社會相을 엿보게 할 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大別한다는 것부터가 무모한 일일는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標題 붙은 記事 특히 敘事性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부분이 無署名이고 가끔 筆名이 나타나 있기도 한다.

寄書의 많은 양이 雜報欄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標題 붙은 敘事文도 독자의 부고라고 할 수도 없으며, 또 新聞社 記者들의 所作이라 할 만한 근거도 없다. 작자가 누구든 筆者의 관심은 이 가운데 討論體小說 양식에 맞는 몇 개를 찾아 이들도 開化期의 소설 속에 포함시켜 보는 것이 온당한 것임을 立證하는 데 있다.

標題 붙은 敘事文中 討論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예로 보이겠다.

[가-1] 北村大安洞近地에有一老翁이勢甚貧窶하야日出則往于鍾路營業하고日入則歸休其家하야日以爲常이러니幾日前偶然吟하야恍惚精神이似夢非夢之際에有一大漢이自空飛下하야 추住其腦에如風般驅去키로隨行良久에到着一處하야定睛看之則……

[가-2] ……是一夢인디所過光景이歷歷在目中하야事甚奇異키로其所親에게傳播하야該洞近地에一件話柄이되얏다더라. <雙者奇夢>

[나-1] 董菴居士 | 閒居無聊하야焚香操琴而彈○○操等○○하고已而散步庭中하야汲清泉而洗桐하야履蒼苔而馴鶴이라가身倦神疲하야歸休于虛白之堂이러니有一山客이長揖而就坐라가猝然問曰……

[나-2] ……客이惘然謝之하고退而記其言하야以警世之處於廟堂者라라. <董菴琴說>

[다-1] 余嘗有幽憂之疾하야家居靜攝이러니適有賣卦先生이過於門前커늘邀入而坐定에屈大夫에卜居故事을依하야余之行藏을問흔디先生曰行藏을何可操시而決之리오……

[다-2] ……有志必成이니何患無時리요筮理渺茫하야問之無益이라하고整衿藏書에揖여而去라라. <卜居續問>

[라-1] 東峽中에一老人이有하야每年에入山採藥하야……一宵를止宿하고謂主人曰余가入山採藥하야屢伐草爲幕하야……山神의祈禱하야曰大韓인民은盡皆死亡이로소이다……活我百姓하움소서하얏더니其夕에山神이現夢曰汝雖愚民이나어저디韓民의罪를不知하나……

[라-2] ……汝其以此로告○百姓하야應當自知其罪키리라乃愕然以覺하야汗出沾衣○云하더라. <采藥翁：山人說夢><sup>31)</sup>

31) [가] 大韓每日申報, 1905. 9. 5.



上記 4편의 끝은 첫머리 만남이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2편, 先生을 맞아 對談하는 것이 2편씩이다. [-1]은 첫머리를 [-2]는 끝부분을 나타낸다

「聾者奇夢」은 꿈에 저승에 갔다가 大官, 양반, 娼家女人을 만나 부탁을 듣고 오는 이야기며, 「董菴琴說」은 居士가 山客 맞아 정치 문제를 토론한 것이고, 「卜居續問」은 賣卦先人을 집에 모셔 정치·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해답을 들은 것이고, 「山人說夢」은 探藥老人이 山神에게서 구중들은 大韓人의 약점을 기록해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이 4편은 첫머리에서 사람의 만남이 상당히 虛構化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다만 글쓰는이의 강한 주장을 표현하려는 目的도 目的이려니와 虛構에 대한 자각의식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미 小說的 성격임을 알 수 있겠다. 또 끝부분은 헤어짐이나 꿈에서 깨어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중간부에 있는 토론이나 대담이 객관화되고 강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글 쓴 目的은 대화와 토론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敎訓的이거나 풍자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討論體小說이 갖는 樣式 그대로다. 표기 문자가 漢主國從이란 것만 제외하고 보면 흠잡을 데 없는 討論體小說이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討論體小說에 비해 虛構性은 더 강화되어 있으며——특히 「聾者奇夢」이나 「山人說夢」은 古代小說에 가까운 정도의 짜임을 가졌다——처음과 끝이 마주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 4편도 討論體小說의 범주 속에 넣어 연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 V. 討論體小說의 衰殘과 그 殘影

討論體小說 樣式的 發生이 어느 때였는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의 消滅時期에 관해서도 斷言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를 잡아서 보면, 筆者의 주장대로 寄書 중

[나] 大韓每日申報, 1905. 9. 12.

[다] 大韓每日申報, 1905. 9. 24.

[라] 大韓每日申報, 1905. 11. 5.

에서 몇 편 標題 붙은 雜報중에서도 몇 편을 다 討論體小說이라 인정한다면, 1905년에서 1906년 사이가 전성기가 될 수 있다. 하기가 가장 빠른 것은 1898년 독립신문에 실린 것이겠고 나중 것은 1907년 大韓每日申報에 실린 「時事問答」이 된다. 그러나 筆者의 조사가 불충분했을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그리 오래동안 이 樣式이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결국 討論體小說은 소위 본격적인 新小說——李人植의 「血의 淚」가 발표된 것을 기점으로 그 뒤를 잇는 많은 小說들——初期에 나타난 한 양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양식은 小說로서는 몇 가지 허점이랄까 또는 不完全性 때문에 생명이 갈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소설이 가질 수 있는 變化美——사건의 기복이나 對立的 人物에 의한 갈등 따위가 없다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偏在性이 主題를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反面에 變化의 가능성은 말살시킨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主題의 抽象性이 具體美를 없앴다는 것이다. 主題란 본래가 抽象的인 건 하지만 이를 具體化시키는 작업이 따르지 않을 때는 흥미 지속에 차질이 오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세째 制限的 主題 즉 限定된 主題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타의 광범위한 것들을 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급변하는 사회 현상과 생활감정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독자의 흡수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1906년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소설들 —自由戀愛의 구가, 외국유학에 의한 新學問 도입 등등을 담은 것들과의 대결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이유로 討論體小說은 조용히 退潮하게 되었겠지만 그 殘影은 다른 新小說 속에 던져 주고 있다. 「禽獸會議錄」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동물들이 벌이는 討論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討論體小說의 양식에 맞는다. 또 다른 新小說의 한 부분으로서 등장하는 討論의 章에서도 이것의 殘影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文學樣式이든 새로운 도전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응전력과 變化의 原理를 갖지 않는 한, 한 시대와 함께 물러나 뒷전에 놓이게 됨은 당연한 것이다. 討論體小說도 이에서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다.